

# 주민 위하려다... 261년 보호수 '허망한 죽음'

### 함평군 월야면 지변마을 앞 느티나무 고사돼 제거하기로 군, 2000년 정자·도로 설치...관리 소홀 비판 면키 어려워

함평군의 관리 소홀로 260여 년간 한 자리에서 마을의 초입을 지키던 보호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마을 정자와 도로 설치 과정에서 보호수의 뿌리 건강이 나빠져 고사 직전이 된 것으로, 관리 주체인 함평군이 제때 조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함평군은 지난 16일 함평군 월야면 지변마을 초입에 있는 보호수 느티나무 1그루에 대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고 수목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 느티나무는 수령 261년에 높이 18m로, 지난 1995년 6월 보호수로 지정됐다.

보호수란 100여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보호수 지정과 해제는 국유지의 경우 지방청이, 개인 사유지·공유림의 경우 사·도·지자체에서 맡으며 나무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현재 해당 보호수는 높이 18m가 무색하리 만큼 뿔뿔이 거의 잘렸고 남은 몸통마저도 꺾질이 벗겨지고 말라가는 등 한 눈에 봐도 고사되기 직전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공무원과 관리자,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 나무의 건강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고 나무를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호수 고사에는 지난 2000년 보호수 인근에 지어진 마을 정자와 도로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자는 당시 지변마을이 '범외 없는 마을'로 선정되면서 포상금과 마을 자금으로 건립됐다.

전문가는 마을 정자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등이 나무 뿌리를 덮었고 이로 인해 뿌리가 호흡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관(줄기)이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태풍 등 강풍이 불 경우 고사된 수관이 부러질 위험이 있어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함평군 관계자 역시 "정자와 도로 설치 등으로 인해 고목 뿌리가 숨쉬지 못하게 됐다"며 "수목이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관리 주체인 함평군의 주기적인 점검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은 지난 2010년 말라죽은 가지를 잘라내고 영양제를 주사했으며, 2018년 나무 상처를 치료하고 해충 방제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군 관계자는 "한순간에 상태가 나빠지는 나무의 특성상 한번에 고사 상태를 알 수는 없다"며 "만약 관리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외과 수술 등 의학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며, 충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은 관련법상 보호수 인근이 도로 등 공용 용지로 사용될 경우 보호수를 이전할 수도 있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군은 이에 대해 "도로 설치 시 보호수 관련 부서와의 협조·공직 등이 따로 없어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도로를 깔아놓고 이제와서 도로 때문에 보호수를 옮기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보호수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



함평군 월야면 지변마을에 있는 수령 261년의 보호수가 뿔뿔이 잘린 채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함평군 제공>

에 만약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 소홀 등으로 보호수를 해제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객관적 사실 관계 파악,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해당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보호수

지정 해제와 제거에 대한 설명을 진행, 동의를 얻었으며 제거 이후에는 같은 종인 느티나무를 대신 심을 방침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맞춤 재취업 이행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반복·장기 수급자 요건 강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실업급여 정책이 구직급여 지급 중심에서 맞춤형 재취업지원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유형에 맞는 재취업 활동을 이행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모든 수급자에게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취업 의사는 있으나 재취업이 어려운 수급자는 일대일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도 지원한다. /천희화 기자 strong@

## 초등생 학습 결손 해소 지원

### 광주교육청, 도움닫기 프로그램

광주시교육청이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 학습결손 해소 지원에 나선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은 학습결손 해소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다.

학생별 학습진단 이후 교사의 추천을 받거나 학습 보충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방과 후·방학 중 교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역량 신장을 목표로 한다.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과목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수업 방법도 학생들의 수준과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학습지도를 비롯한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난해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에서는 148개교 1만3492명의 학생이 참여해 7009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과일나무 꽃 만개 빨라져...저온 피해 대비를

### 광주 배꽃, 이틀 빠른 4월 5일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나무 꽃 만개 시기는 4월 초 찾아오는 꽃샘추위 방지 차원에서 농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발육이 빠른 꽃은 추위가 왔을 때 암술이 피해를 보기 쉬운 한해 결실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농가는 꽃가루 확보와 발아율 확인 등의 대비를 하고 꽃이 피어있는 동안 저온 피해에 대비해 살수 시스템이나 서리방지 팬을 점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와 전지해과장은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는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때인 만큼 기상 상황을 살펴 저온과 비, 건조 현상 등 이상기상에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 연구소 관계자는 빨라진

만개 시기에 대해 "지구 온난화에 따른 3월 기온 상승으로 과일나무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과일나무 꽃 만개 시기는 4월 초 찾아오는 꽃샘추위 방지 차원에서 농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발육이 빠른 꽃은 추위가 왔을 때 암술이 피해를 보기 쉬운 한해 결실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농가는 꽃가루 확보와 발아율 확인 등의 대비를 하고 꽃이 피어있는 동안 저온 피해에 대비해 살수 시스템이나 서리방지 팬을 점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와 전지해과장은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는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때인 만큼 기상 상황을 살펴 저온과 비, 건조 현상 등 이상기상에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남교육청 스포츠 강사 모집 요건은 학력 차별"

### 시민단체 '4년제 대졸자 자격 인정' 매뉴얼 개정 촉구

전남교육청이 작성한 중학교 스포츠 강사 모집 요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 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불리한 대우"라며 전남도에 매뉴얼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도가 작성한 '2023 중학교 스포츠 강사 학교 단위 선발 업무 매뉴얼'에는 스포츠 강사 모집 시 1~2차시까지 강사가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 3차 공고에서는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3학년 이상)과 졸업생에게 자격을 부여할 것이 명시돼 있다.

시민모임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강사의 경력·경험과 해당 분야의 자격증 유무와 교육 경력의 유무로, 단순히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교육 활동 지도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뉴얼은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교원자격증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3차 공고 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만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5·18 캠프 진행 들불지기 모집

###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내달 2일까지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3년도 '5·18청소년 인문학 역사캠프' 진행요원으로 활동할 청년·대학생 '들불지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소정의 활동비와 봉사시간을 받는다.

캠프는 5·18민주화운동과 들불야학을 주제로 진행되는 역사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로 10년차를 맞았다. 노동자 야학운동, 5·18민주화운동 등에 참여한 '들불 7열사'(박기순·윤상원·박용준·박관현·신영일·김영철·박효선)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리는 체험 캠프다.

참가 희망자는 웹사이트(bit.ly/2023들불지기)를 이용하거나 사무실(062-512-0527)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알베르 카뮈

문이당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